

'안전한 도시'로 국내외 위상 확보...광주 경쟁력 키운다

'안전문화 3·3·3' 범시민 운동 확산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안전의식 향상
안전 마을·학교·기업 10월 2차 공모

광주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모범 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만큼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중이다. 이 가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마을·안전 학교·안전 기업 만들기'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안전 마을과 안전 학교, 안전 기업을 각각 1곳씩 선정하는데 이어 올해는 10월 중 두 번째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마을·학교·기업 만들기' 추진 배경=이 사업은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안전문화 3·3·3운동'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안전문화 주체인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부터 안전의식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다.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문화의 최일선이 될 마을과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는 3대 분야별 우수기관·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주변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등 안전 문화의식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문화 3·3·3운동'의 범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정민권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의 3대 주체가 스스로 나서서 안전 의식을 실천하고, 서로 경쟁을 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첫 공모임에도 많은 마을과 학교,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공모에는 안전마을 부문에 6개의 마을이, 안전 학교 부문에는 3곳의 학교가, 안전기업 부문에는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내용은=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1곳씩을 선정한다.

안전마을 분야는 자치구가 1차 심사를 통해 추천한다. 선정기준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이 없는 마을이 우선이다. 심사 내용은 화재와 교통사



광주시에 지난해 주최한 '안전마을·학교·기업 선정'에서 제1호 안전마을로 선정된 광산구 수완동에서 지난 1월21일 첫 인증 명판 제막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고, 범죄 건수, 안전교육 실적 등 분야별 통계의 정량평가와 주민 노력도,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 실적 등의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안전학교 분야는 광주지역 초·중·고 312개 학교가 대상이다. 각 학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 1차 심사를 통해 광주시에 추천하게 된다. 학교폭력, 교내 안전사고, 스포츠 사고 등 분야별 사고 통계의 정량평가와 사고율 감소 및 밝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학내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안전기업 분야는 기업체가 신청하면 1차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한 뒤 3개 사업체를 광주시에 추천하게 된다. 광주지역 100인 이상 기업체 361개소가 모두 대상이 된다. 무사고·무재해 이력, 업무상 질병, 산재예방교육 이수 통계가 정량평가되고, 사고·재해 줄이기 기업과 직원 노력도, 작업 현장 안전관리 규칙 준수, 안전대책·우수사례 등을 정성평가 하게 된다.

◇광주, 안전지수 크게 향상=지난해 광주시의 각 분야별 안전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 연속적으로 추진중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결과 광주시는 화재와 감염병이 1등급 판정을 받았고, 화재와 감염병,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2등급 이상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인 4-5등급이 없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안부가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올해 통계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정민권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을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해온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약 실천을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운동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도 한 몫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와 자살, 산업재해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지역안전지수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모범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것이 광주시 안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안전지수 분야별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과 예방활동 노력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cki@kwangju.co.kr

안전문화 3·3·3운동

가정·학교·직장(3대 주체)와 안전교육·안전점검·안전신고(3대 수단), 홍보·지원·단속(3대 행정력)을 말한다.

이는 가정·학교·직장의 모든 시민이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행동을 습득하고, 안전점검·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생활을 습관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여기에 안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홍보와 지원·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안전도시

그 지역 사회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로공인되면안전한 도시로서의 국내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도시 이미지로 국제행사 및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민안전점검단' 자발적 탄생...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제1호 안전마을 '광산구 수완동'

지난해 첫 안전마을로 선정된 곳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이다.

'제1호 안전마을'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수완동은 안전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 기타 특수시책 등 3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최종 6개 마을이 안전마을을 놓고 경쟁을 벌였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마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생단체인 '수완동 시민안전점검단'을 발족해 점검단 전원이 안전자격증을 취득하고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한 뒤 위험순위별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수완동은 제1호 안전마을 명패와 함께 안전시설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다.



공정 개선·재해저감 우수...제조현장 사고 방지

제1호 안전기업 '디에이치글로벌'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주)디에이치글로벌이 지난해 광주시가 첫 주관한 '제1호 안전기업'에 선정됐다.

북구 첨단2지구에 위치한 (주)디에이치글로벌은 18대1의 경쟁률을 뚫고 광주의 첫 안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1차 평가에서는 18개 기업이 경쟁을 벌였고, 2차 평가에서 3개 기업이 경쟁을 벌였다. (주)디에이치글로벌은 제조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개선 활동과 재해 저감대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자 교육과 소방활동 훈련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 내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힘썼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계차 등에 블루라이트와 후방 카메라 등을 설치해 위험성 평가를 개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우관계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제1호 안전학교 '광주 서초등학교'

지난해 '제1호 안전학교'에는 광주 서초등학교가 선정됐다.

1차 평가에서 6개 학교가 경쟁을 벌인 뒤 3개 학교로 압축된 뒤 최종 광주 서초등학교가 첫 안전학교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서초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교우 관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대책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교육활동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제로화 운동 등을 전개한 점도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또한, 교통안전 북도 만들기, 안전규칙 만들기 공개 수업 등을 통한 특수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옥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갑자보(184년) ◆ 기묘보(1999년)
 ◆ 계해보(1863년) ◆ 학사공파(1935년)
 ◆ 정미보(1907년) ◆ 평장사공파(2012년)
 ◆ 갑오보(1954년) ◆ 의령옥씨 1500년사
 ◆ 병진보(1976년)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삼중, 옥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